"성폭행 논란 제닷입니다"

metro
메트로 2013년 ○월 ○일 월요일 제2737호 www.metrobusan.co.kr

추신수 올시즌 첫 투런포

'단언컨대' 대박 단언했죠

패러디 열풍 몰고온 CF 만든 광고회사 이노션 3총사 "헬렌 켈러 명언서 착안"

이노션월드와이드 손경화(왼쪽) 차장과 이재훈(가운데) 대리, 오누리 사원이 회의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계단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끝봄을 두려워 않고 뛰어드는 용기와 어떤 시련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지난 4월 말 전파를 탄 베가 아이언 광고가 숱한 패러디를 낳으며 '단언컨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KBS2 '개그콘서트' 개그맨 김준현이 "단언컨대 두껍은 가장 완벽한 물체입니다"를 외친 황두껑 광고는 카피, 여성 모델, 촬영 장소까지 패러디하며 유튜브 등록 한 달 만에 19만 뷰를 돌파했다.

최근 MBC '무한도전'은 멤버들이 냉면을 먹는 장면에 '냉면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식으로 베가 아이언 카피를 인용했다. 지난 3일 방송된 tvN 'SNL 코리아'에서도 신동엽이 베가 아이언 광고를 19금 코드로 처리했다.

화제의 팬텍 베가 아이언 광고를 만든 이노션월드와이드 카피라이터 손경화(33) 차장·이재훈(32) 대리, 아트 디렉터 오누리(26) 사원을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만났다.

'단언컨대' 카피는 이재훈 대리로부터 나왔다.

이 대리는 "한국 사람들의 애둘러 말하는 습관, 서로 책임 안 지려고 모호하게 말하는 풍토 속에서 '단언컨대'란 문구에 많은 이들이 쾌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베가 넘버6 광고를 만들 때 자료를 찾던 중 헬렌 켈러의 '단언하건대 볼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이다'란 문구를 접했다"면서 "스마트폰의 고화질과 넓은 화면을 강조하는 카피로 적합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손경화 차장은 "회의 당시 호불호가 갈렸지만 광고에 힘을 싣기 위해 카피를 '단언컨대'로 축약해가며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회고했다.

'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부분은 입사 2년차 오누리씨의 아이디어였다.

"베가 아이언이란 정식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광고 제작에 참여했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세계 최초의 일체형 금속 테두리였어요. 메탈의 차가운 속성을 따뜻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메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식으로 의인화한 거죠."

이후 제품 이름이 베가 아이언으로 정해지자 멘탈을 영혼이란 우리말로 바꾸었다.

카피 몸통은 손경화 차장이 맡았다. 손 차장은 "광고 카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부러 멋있는 말로 꾸미지 않으면서 제품 특징을 살리는 것"이라며 "베가 아이언의 엔드리스 메탈이 스마트폰 몸체를 단단하게 감싼다는 특성에 주목해 '차갑지만 약한 자를 감싸안는 따뜻함'이란 카피 등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카피라이터 혼자 전체 카피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많은 사람의 피드백을 들으며 카피를 기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집안일만 전념하는 722만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육박했다. 일을 하고 싶지만 취직 구하이 여의치 않거나 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사와 육아 전념자는 721만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매년 6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점 15세 이상 인구는 4209만8000명으로 가사·육아 전념자는 6명 중 1명꼴이다. 역시 사상 최대인 비경제활동인구 1580만7000명 중에서는 45.6%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다.

살림만 하는 가사 전념자는 576만5000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사 전념자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증가하다가 실직 상태가 지속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고착화된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63만 명이다.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도 13만5000명에 달했다. 육아를 전담하는 사람은 145만4000명으로 여성이 144만8000명, 남성이 7000명이다.

/박상훈기자

대졸 정규직 취업하면 뭐해

23.5% 2년 만에 비정규직

신규 정규직 취업자 중 전문대 이상 대학 졸업자의 23.5%가 2년 만에 비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문대 이상 대학 졸업자 1만8066명을 대상으로 2009년 1차 조사 후 2011년 추적 조사를 실시한 직업이동경로 추적 조사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55.5%였다. 같은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 중 정규직 비율은 86.9%, 이직한 사람 중 정규직 비율은 67.9%로 집계됐다. 특히 성별로는 남성이 일자리를 유지(90.6%)하거나 이직(73.3%)한 경우 정규직을 유지한 경우가 여성보다 각각 8.2%포인트, 11.2%포인트 높았다.

또 2년간 취업 상태를 유지한 사람 중 일자리를 옮긴 사람은 33.2%였고 절반인 50.1%는 같은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 계열별로는 교육 계열 출신자의 56.3%가 일자리를 유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학 계열(53.0%), 사회 계열(53.5%), 의약 계열(52.1%)이 높았다. 인문(46.0%)-자연(44.8%) 예체능(37.9%) 계열 졸업자는 취업자 중 절반만 일자리를 유지했다.

월평균 소득 상승률은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18.3%)보다 일자리 이동자(33.1%)가 더 높았다. /김유리기자

해운대 달군 비키니 부산비다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피서객들이 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비키니 페스티벌에 수영복 차림으로 참가해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5255만원 > 배우 4134만원

연예인 직종별 소득 역전

연예인들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3473만원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직종 중에선 K-팝 열풍을 타고 가수들의 벌이가 가장 좋았다.

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운동선수·연예인 수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예인 2만5006명이 신고한 수입액은 8683억원(1인당 평균 3473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예인의 평균 소득은 2008년 2852만원에서 2009년 25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0년 2741만원, 2011년 3179만원, 지난해 3473만원 등 3년 연속 다시 늘었다.

직종별로는 가수(4114명)가 1인당 평균 525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탤런트(1만4076명)는 413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모델(6610명)은 1031만원으로 가장 적게 벌었다.

2010년까지는 배우·탤런트의 평균 소득이 가수보다 많았지만 2011년부터 역전돼 가수가 배우·탤런트를 2년째 앞질렀다. /김현정기자 hjkim01@

오늘부터 '한증막 더위'

역대 최장 49일 장마 사실상 종료…서울 33도 등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

7월 중순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역대 최장기 기록을 남기고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에 있던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돼 우리나라로 유입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사실상 오늘로 장마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전라남북도 지방(10~70㎜)과 경상남북도·경기 서해안·제주 남해안(5~40㎜)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번 장마가 4일로 끝나면 장마 지속 기간은 49일로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장마로 기록된다. 올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장마 기간은 평년(32일)보다 각각 17일, 16일 길었다. 지금까지 가장 긴 장마는 1974년과 1980년 45일이었다.

기상청은 8일 이후 서울 지역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이날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가 이어지는 다음주 한낮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551만kW까지 확보한 예비전력이 둘째주 마이너스 103만kW, 셋째 주 17만kW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연예인이 전하는 '연예인 되기 노하우' 캠프

연예인 지망생에게 가수·배우 오디션은 물론 데뷔·연예인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연예인 되기 캠프'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올바른 연예인 데뷔 경로와 산업 정보를 전달하는 '2013 엔터테인먼트 멘토링 캠프'를 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특히 아역배우 데뷔 방법, 연예계 범죄 예방법, 기획사 선택 요령 등 실질적인 정보를 강연으로 준비했다.

배우 이종수는 '연예인으로서의 생활 및 마음가짐' 등 연예 활동을 위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 '티오피미디어'는 가수 연습생 발탁과 영화 '동직대교'(가제) 배역을 두고 오디션을 진행한다. 문의 blog.naver.com/mentor_ent /김현정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철

마릴린 먼로 의문의 죽음

1962년 8월 5일 세기적인 섹스 심벌 마릴린 먼로가 자살로 보이는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누드모델을 하다 할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았고 영화 '나이아가라'에서 주연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멋진 금발과 푸른 눈, 전신에서 발산하는 성적 매력으로 그녀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섹시 심벌로 떠올랐다. 그러나 연이은 결혼 실패와 비인간적인 할리우드와 생리로 인한 약물중독 등 불행한 사생활은 그녀를 비탄으로 내몰고 말았다.

뇌병변·지적장애인 한정후견 유리

성년후견제 지난달부터 시행…법원서 관리해 안심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나모(70)씨는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도의 사무처리를 하기는 무리여서 중요한 매매 계약 등을 할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모(75)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여느 사람처럼 불안하다. 부인과는 사별했고 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 의지할 곳이 없다. 하지만 재산 관리 등을 맡아온 고모씨가 있어 안심이다.

기존 질병·장애·노령 등의 이유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생활이 후견인의 의사에 맡겨졌던 제도가 바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획일적으로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피후견인의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위자의 모든 능력을 박탈한 채 피후견인의 모든 생활을 후견인이 대신하는 형태였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후견 종류를 후견인의 권한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뉘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눠 피후견인의 능력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또 후견인 관리·감독 기관을 법원으로 정해 후견인의 불법·탈법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나씨는 법원이 대리권을 부여한 사안에 한해 도움을 받는 한정후견제를 선택하면 유리하다.

현씨는 고씨와 정식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후견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해 등기해놓는 임의후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 가족이나 친척·친구, 자원봉사자 및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중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법원행정처는 "가정법원이 직접 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으며 잘못이 발견될 경우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돼 있어 피후견인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두리기자

국정원 국조 핵심은 '원판김세'

민주, 핵심증인 채택 촉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예정된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인 증인 채택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조 특위 여야 간사는 4일 '3+3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증인채택 문제나 증인에 대한 청문회는 내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양당 간사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더불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이른바 '원판김세'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물론 15일인 국조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정 의원은 "오늘 합의된 것은 거의 없다. 어렵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오늘 접지는 않자"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국조 파행에 책임이 있다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자연스럽게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민보고를 열고 시민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가을이 두려운 전셋값

상반기에만 전국평균 2.75%↑…비수기 불구 수천만원 오른곳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연일 치솟고 있다. 과거에는 성수기에만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최근에는 비수기에도 수천만원 정도 오르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주택 기준 전세 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2.75%에 달한다.

◆ 화성시 65.3% '수도권 1위'

특히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화성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08년 말보다 65.3% 뛰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순위로는 경남 양산(69.3%)과 충북 청원군(67.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58.7%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전세가가 급등하는 것은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구입할 여유가 충분한 사람도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찾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과거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으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3%, 서울은 57%를 기록했지만 지금까지 전세 선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란을 막는 방안으로 주택 수요·공급 조절, 금융권 전세대출 차별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전세자금 대출 2배 상향 검토

정부도 전세 대란 우려에 전세 공급,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대상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대출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소득 수준이 낮은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내걸린 시세표. /연합뉴스

잠깐만 / 메트로 포토 캠페인

"잠은 집에서" 술 취한 시민이 지하철 승강장 의자를 침대로 착각한 듯 곤히 잠을 자고 있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홍보한 어느 한 가구 광고처럼, 지하철 의자는 과학이 아니다. 잠은 집에서 자는 것,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켜야 한다. /서울메트로 제공

뉴스 & 뉴스

배움터 지킴이가 지적장애 여고생 성추행

● '배움터 지킴이'가 근무하는 학교의 지적장애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2010년부터 6월까지 A양(지적장애 2급)에게 "밤마 때 잘 지냈느냐, 한번 안아보자"고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김유리기자

상반기 서울 지하철 유실물 80% 주인 찾아

● 올해 상반기 서울 지하철 유실물의 80%가 주인을 되찾았다. 4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까지 지하철 1~8호선 유실물이 5만2872개였다.

이 중 승객이 되찾아간 물건은 4만1996개로 인도율은 79.4%에 달했다. 인도율은 전자제품(94.4%), 가방(84.4%), 서류(56.2%) 순으로 높았다. /김유리기자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생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수강생을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총 2개월 과정이며 동작구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초·중교생 6만4000원, 고등학생·성인 7만4000원이다. 문의: www.nise.kr/dongjak

연천 선사마을 체험 행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4일 '연천 선사마을 여름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이며 참가비는 1만5000원이다. 7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전산 추첨으로 최종 65명을 선발한다. 문의: 02)2670-4164

강서둘레길 전 구간 개방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강서둘레길 11.44km 전 구간 공사를 마치고 지난 2일 개방했다. 탐방 시간은 총 4시간여. 개화산 배꽃이 공원, 가족 피크닉장 등과 연계한 관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도심 속 휴양 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02)2600-4183

트레스타 푸드뱅크 알리기
트레스타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우리 가 없이 지키자는 취지 아래 여름 휴가철 성수기 국립공원 시설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오토캠핑장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과 함께 어 푸드뱅크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냉면 7929원…부산이 가장 비싸다

전국 16개 지자체 외식비 비교…칼국수 5071원 최저

전국에서 부산의 냉면 가격이 가장 비싼 반면 '칼국수'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안전행정부 지방물가 공개 서비스에서 확인된 전국 16개 지자체의 8개 종목별 외식비 평균 가격(1인분 기준) 현황을 보면 여름철 인기 외식 종목인 냉면의 경우 부산이 평균 7929원으로 최고가였고 충북이 평균 6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칼국수 평균 가격은 부산이 5071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어 대구 5333원으로 나타났다 칼국수가 가장 비싼 지자체는 서울 6500원이었다

또 남녀 노소가 좋아하는 짜장면의 업소별 평균 가격은 대구와 울산이 4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지자체는 충북(4643원)이고 지자체 평균 가격은 4223원이다

여름휴가철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은 부산의 경우 전국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이 1만3733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저렴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도가 두번째로 비싼 1만2704원을 기록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산지회에 따르면 "지역 음식업소는 총 2만7000여 개로 집계된 가운데 부산지역 물가는 동부지역 '해운대·수영·남구'가 전반적으로 비싼 가격이었고 서부지역 '사상구·사하구·북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서울의 외식 물가가 가장 높아 '비빔밥 7818원' '삼겹살 1만3733원' '삼계탕 1만3227원' '칼국수 6500원' 등으로 전체 가격 공시 대상 8개 품목 중 4개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 김치찌개 백반은 충북·충남이 6000원으로 제일 비쌌고 전남 5278원으로 최저가였다 김밥은 대전이 3200원으로 가격대가 제일 높았고 전북은 2640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해외로 해외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든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피서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에어부산 상반기 매출 23%↑ 영업이익 4000만원 흑자

부산에 본사를 둔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엔저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악재 속에서도 상반기 괜찮은 성적을 냈다

에어부산은 상반기 매출액이 1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243억원) 늘었다고 2일 밝혔다 또 영업이익은 -5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경상이익도 +11억원으로 지난해(+4억)에 비해 늘었다

에어부산은 상반기 중국 노선의 확대가 실적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에어부산은 지난 4월 부산~시안 노선을 신규 취항했고 지난해부터 부산~칭다오 노선을 운항 중이다 특히 중국 정규 노선의 경우 7월 현재 탑승률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선박부품 생산공장 등 곳곳에서 화재 잇따라

4일 새벽 4시22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선박부품 생산 공장에서 기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은 탈경화기 등을 태워 5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냉각기 오작동으로 인한 기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3일 낮 12시2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철물점의 자재창고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불은 창고 옆 식당 자재창고까지 번져 모두 9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벼 병충해 벼멸구 주의보

경남농기원 "확산속도 빨라…2회 이상 방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복경)은 지난 7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벼 비래 해충 예찰 결과 벼멸구 밀도와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벼 비래 해충 합동 예찰에서는 벼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에 대한 밀도와 발생 상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벼멸구가 지난 1998년과 2008년도에 큰 피해를 줬던 발생 유형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예찰에서 도내 평균 벼멸구 발생 필지 비율은 31%고 이 중에서 방제가 필요한 필지 비율이 전체의 1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철저한 방제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올해 벼멸구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일찍 시작한 장마에 중국으로부터 비멸구가 유입되면서 이후 강우 일수가 적고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생육과 번식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기술원은 "벼멸구 중점방제기간을 오는 5~10일로 설정 이 기간 동안 지역별 공동 방제를 실시해 방제 효과를 높여줄 것을 해당 지역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로 유입된 벼멸구는 중국에서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한 개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회 이상 방제가 필요하고 방제 시 성분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이탈 베트남 선원 검거

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어선에서 무단 이탈한 베트남 선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T(30)씨 등 베트남 선원 4명은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서구 감천항 3부두 2번 선석에서 조업차 출항한 바누아투 선적 꽁치봉수망 어선 A호(998t·승선원 34명)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내렸다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급유선 D호 선장 김모씨가 이날 오후 5시45분께 이들이 해상에서 표류하는 것을 발견, 부산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경은 오후 6시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생도 서쪽 3.6㎞ 해상에서 베트남 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 중 L(25)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이들 선원을 상대로 무단 이탈 목적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낙동강쓰레기 처리 지원 70%로 늘려야"

부산시는 낙동강쓰레기 처리비용 부담분을 줄이기 위해 국회·정부에 대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낙동강쓰레기 처리비용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4월 '환경부·국토해양부·부산시·대구시·경북도·경남도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광역시 40%, 도 70%로 국비 차등 지원을 결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대구시·경북도·경남도)가 참석한 실무위원회에서 국가하천의 쓰레기 처리비를 재정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시는 국가하천은 관리주체가 국가인만큼 광역시 국비 지원율을 도와 같이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직접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등 일부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는 2013년도 5대강 유역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올해 12월에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2015년부터 지자체 부담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합리한 낙동강 쓰레기 처리비용 국비 분담비율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협 부산지부 금연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본부장 조승진)는 지난 1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금연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층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 전체인	남궁 호
사장 겸 회장인	김 종 학
편집 국장	조 한 호
부산지사장 겸 대표	김 주 환
서울광고문의	(02)721-9651 3
부산광고문의	(051)64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3년 5월 31일 창간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가 00000

풍덩~경남 축제의 바다로

함양 산삼캐기·통영 한산대첩제 등 행사 줄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남 곳곳이 여름 축제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지역 축제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렸다. 이 행사는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12일간 밀양시 부북면 밀양연극촌에서 열려 희극 주간, 셰익스피어극 주간 등 6개 공연장에서 총 38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거제 구조라·지세포·와현해수욕장에서 대표적인 해양스포츠 축제인 '바다로 세계로'가 개최됐다.

1일 개막한 함양산삼축제는 함양 상림공원 일원에서 오늘까지 열린다.

산삼 캐기, 산삼화분 만들기, 심봤다 메아리체험, 로봇극장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가족과 연인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산삼 캐기의 1인당 체험비는 2만원이며 그 외 공연 프로그램은 무료다.

음악축제인 세계타악축제는 8일부터 11일까지 사천시에서 열린다.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축제의 규모를 대폭 키워 '한여름밤의 크리스마스'란 주제로 크리스마스 관련 조형물 20여점 전시, 얼음조각 퍼포먼스 체험, 산타퍼레이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통영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한산대첩 421주년을 기념한 제52회 통영한산대첩제가 개최된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쉬, 연극이 사랑에 빠졌어요'란 주제로 내달 1일까지 17일간 거창군 수승대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12개국 47개 단체가 참가해 총 200회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

/이상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2일 울산 화력발전소 앞 방파제 부근에서 어선에 포획된 3.5m 가량의 청상아리를 해경이 살펴보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 앞바다에 100kg 식인상어

어민·피서객 주의해야

2일 오전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앞 방파제 인근에서 청상아리 1마리가 어선에 포획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50분께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주변 해역을 수색하던 중 오전 7시40분께 연안복합어선 B호(0.37t, 장생포 선적) 선장 K씨가 청상아리를 포획한 것을 발견했다.

길이 3.5m에 100kg의 무게를 가진 청상아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크기였다.

청상아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잡식성과 함께 난폭한 성질로 사람이나 보트를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

울산해경은 지역 계출소와 해수욕장 구조센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어민과 해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 모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잡힌 청상아리는 울산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44만원에 낙찰됐다. /뉴시스

뽀로로 군단 총출동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세계 10여 개국에 수출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상품인 '뽀로로' 탄생 10주년을 기념, 옥상공원에서 9월 1일까지 뽀로로 최대의 50점을 전시하는 행사를 연다. 2일 오전 전시장을 찾은 어린이 들이 1.5m 크기에 각기 다른 표정과 동작을 하고 있는 뽀로로 캐릭터를 구경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 SMP 물탱크 사고 규격미달 일반볼트 사용

지난달 26일 15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SMP 폴리실리콘 신축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고장력 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가 사용된 사실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일반적인 고장력 볼트는 1㎠당 9t 이상의 힘을 견디는 볼트로, 이번 물탱크는 1㎠당 10t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갖는 규격 제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일부에 1㎠당 9t 이하인 일반 볼트가 사용됐다.

1400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는 높이 17m에 지름 10.5m로 원통형이다. 400개가량의 철판을 4만개의 볼트로 16단(높이) 결합해 만들었다.

샘플 조사 결과, 규격에 미달하는 일반 볼트는 하단에 많이 사용됐다. 전체 16단 중 밑에서 3~6단 사이가 이번에 파손된 부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

동의대 논문표절 검색프로그램 도입

동의대학교(총장 심상무)는 올 2학기부터 논문표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논문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논문 파일을 검사하면 34개국 언어로 저장된 각종 논문을 대상으로 문장 유사성 등의 표절 의심 부분을 검색한다.

학교 측은 전임 교원과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논문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ID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논문표절 방지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석·박사 학위논문에 프로그램 검사를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연구윤리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논문표절 방지와 연구 윤리 문화를 강화해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대학원장은 "논문표절은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학문적 양심 고취와 학위논문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외대·대선주조 산학협력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정해린)와 대선주조(대표이사 박진배)는 1일 대선주조 본사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류현철 단장과 대선주조 차재영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상호 발전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산학 협력 인력 양성,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등에 협력하나가기로 했다.

남자 인어 보셨나요?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게이 축제에서 굴빛 인어 복장을 하고 보트 위에 앉아있는 참가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AP 연합뉴스

33년 독재 무가베 5년 더!

짐바브웨 대선 또 압승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89·사진) 대통령이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3일(현지시간) 짐바브웨 선거관리위원회(ZEC)는 지난달 31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무가베 대통령이 유권자 61.9%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무가베에 도전한 모건 창기라이(61) 총리는 33.9%의 득표율을 보였다.

무가베는 1980년 짐바브웨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33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해왔다. 이번 승리가 인정되면 앞으로 5년간 더 정권을 쥐게 된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창기라이 총리 측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스러운 선거였다"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거 감시 시민단체는 "야당이 강세를 보이는 도시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10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미기자

"알카에다 테러준비 끝"

미국 등 서방국가 재외공관 대상 | 이달 중 중동서 가능성

"알카에다가 미국 등 서방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 같다."

3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테러 공격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수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예멘에 거점을 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에서 지난 몇 주간 내부 연락이 계속 진행됐고 최근 며칠 새 그 빈도가 늘었다.

당국자들은 예멘 정부도 이에 대해 경고, 미국이 재외공관 운영 중단과 여행 경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예멘 주재 대사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멘의 국가안보 관계자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가 수도 사나를 비롯한 예멘의 주요 도시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사나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 대해 4일과 5일 문을 닫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안보 보좌진은 3일 테러 위협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예멘을 비롯해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등 17개국 21개 대사관과 영사관 운영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8월 중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국민에게 국외 여행 경계령을 내렸다.

이번 비상 사태는 미 당국이 알카에다의 통신 내용을 감청하던 도중 테러 공격 논의 내용을 포착하면서 벌어졌다.

/조선미기자 seesun@metroseoul.co.kr

수상스키 타는 다람쥐 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의 놀이공원에서 다람쥐 '트위기'가 수상스키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日 동북부 지진 2명 부상

4일 일본 동북부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9분께 지진이 감지됐다. 진원의 위치는 북위 38.1도, 동경 141.8도이며 깊이는 약 50km로 파악됐다.

쓰나미 발생 우려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진으로 센다이시에 사는 30세 남성이 머리를 다치는 등 센다이에서만 2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현지 소방국이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미기자

시리아 무슬림단체 "크루아상 먹지마"

시리아의 무슬림 단체가 프랑스 빵으로 잘 알려진 크루아상이 억압의 상징이라며 금지령을 내렸다.

3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시리아(아슬람 움맘) 위원회가 '초승달' 모양의 빵은 '식민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무슬림에 대한 유럽의 승리를 뜻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위원회는 시리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알레포를 포함해 반군이 장악한 여러 지역에서 크루아상 금지령을 내렸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일>

코스피	코스닥
1923.38 (+2.64)	551.76 (+2.24)
금리	**환율**
2.96 (+0.04)	1123.00 (변동없음)

뉴스 & 뉴스

美 증시 '독주' 사상 최고가

● 미국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전 세계 주가와의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지수를 대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미국 지수 대비 'MSCI 미국 외 전 세계 지수'를 뺀 수치는 1373(2일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미국 지수는 20.0% 올랐으나 미국 외 전 세계 지수는 4.3% 오르는 데 그쳤다. /김민지기자

은행 하반기에 80개 지점 정리

금융위기 이후 실적 악화로 힘이 빠진 은행들이 하반기에 80여 개 지점을 닫기로 결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런 내용의 적자·저생산 점포 정리 계획을 제출했다.

하나은행은 적자와 성장 정체에 직면한 점포 25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4개 점포를 폐쇄해 옮기고 1곳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8개 점포는 연말 결산 결과에 따른 조건부 폐쇄 방침을 정했다. 외환은행은 적자 점포 3곳과 저효율 점포 5곳 등 9개 점포를 통폐합한다. /김민지기자 minji@

"연금 붓듯이 의료비 따로 저축을"

김현정기자가 만난 **금융가 사람들**

■ 보험연구원 조용운 위원

'실손보험과 통합' 노후의료보장상품 출시 준비

60~70대 어르신들은 건강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는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아플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노후 의료비 준비를 은퇴 전부터 철저히 해놓아야 한다.

유행어가 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와 같은 광고 문구를 믿고 보험 상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에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는 공적으로도, 민간에서도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2003~2010년) 새 65세 이상 진료비는 남자 17.0%, 여자 19.2% 증가했다. 또 전 생애 의료비의 50% 이상은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은퇴 이후인 해당 연령대에 큰 병에 걸리면 자칫 평생 모아둔 은퇴자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자신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상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노후 의료보장에 대한 정책 대안 실행을 추진 중이다. 그가 제안한 '노후의료저축계좌+노후실손의료보험' 통합 상품은 금감원이 이달 중으로 표준 약관을 만들고 연말 안에 국회 세법 통과를 거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초 해당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의료저축계좌란 은퇴 전 적립하고 65세 이후에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그는 "해당 계좌의 적립금 역시 한 번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노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개발해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hjkim1@metroseoul.co.kr

물총 서바이벌 "더위 잡아라" 4일 서울 옥산 현대아이파크몰 워터파크에서 물총 서바이벌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매주말 오후 2시 30분 여름 하었죽의 한판 승부 '물총 서바이벌' 이벤트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美 출구전략' 말만 나오면 '코스피 출렁'

자본의 해외 유출이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앞두고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양적완화의 속도 조절이나 조기 종료론이 계기될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은 출렁거렸다.

실제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지난 5월 22일부터 한 달간 한국 주가는 8.6% 하락했다. 버냉키 의장이 연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수도 있다고 출구전략의 윤곽을 좀 더 구체화한 6월에는 증권투자 순유출액이 전월의 4.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 순유출입 규모를 월별로 보면 2월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증권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출구전략의 속도나 폭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스마트폰 혁신 한계 도달"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재현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일 '감동 줄어든 스마트폰 서비스 혁신의 정체인가 더 큰 변화의 전조인가'란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이 그동안 느꼈던 스마트폰발(發) 혁신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스마트폰 하드웨어(기기)의 혁신은 사실상 끝난 상태로 보고 있다. 이미 애플이 만들든, 삼성이 만들든, 중국 업체가 만들든 스마트폰의 성능이 모두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이다. 기기의 혁신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주로 서비스(앱)가 주도해왔다. 그러나 장 연구원은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서비스 시장 역시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정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기자

삼성 뒤통수 친 '애플 대통령' 오바마

'아이폰·아이패드 구형 수입금지' ITC 결정에 첫 거부권 행사
"생산기지 미국 이전" 팀쿡의 일자리 창출 발언 영향 받은 듯

진보 '합리적' 이미지가 강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자국 산업 보호 앞에서는 진보적이지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4일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행정부 25년만에 거부권

1987년 이후 25년간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관련 산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정책실무협의회(TPSC), 무역정책검토그룹(TPRG)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먼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애플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중국에서 생산한 구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을 계속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규정해 이들 제품을 미국 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백악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애플이 이처럼 가시화 생한 배경으로 '일자리 창출 약속'이 꼽힌다.

주요 제품을 거의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자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에서 제품이 생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애플이 이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틈날 때마다 하고 있다.

실제 애플은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전문가용 데스크톱 컴퓨터인 맥 프로 신형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폰·아이패드에 새긴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애플이 디자인했다)"라는 문구를 강조하며 미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내세웠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KT와 경기도 질병관리본부·월진이 협력해 만든 IT 기반 혈압·혈당 관리 솔루션 'Q-care' 서비스를 4일 모델들이 시연하고 있다. KT는 2011년부터 약 2년 동안 30~64세 당뇨 환자 58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결과, 참가자의 93.9%가 서비스에 만족했고 참가자의 70.9%가 당화혈색소 수치 감소세를 보였다고 이날 밝혔다. /김문희 기자

어르신 웬만한 질병 있어도 가입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951-8585

/하국정기자

엄홍길 휴먼재단 관절염 무료치료 후원

연세사랑병원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후원협약체결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커지게 됐다. 우리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쇠퇴기를 맞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관절은 고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찾아오는 신체 부위 중 하나다. 특히 무릎관절은 운동량이 많을 뿐 아니라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있다.

◆노년을 괴롭히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관절 내 연골이 손상돼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없어 손상돼도 알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도 불가능하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되는데 치료 방법으로는 '인공관절 수술' '줄기세포 치료' 등이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본래 자신의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법으로 운동량을 회복시켜주고 통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인공관절의 수명이 다하면 재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65세 이상 무릎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에게 주로 시행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초·중기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줄기세포를 연골 협번에

고용곤 원장(왼쪽) 연세사랑병원장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

주입해 연골의 재생을 돕는다.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성인의 골수나 제대혈(탯줄 혈액), 지방 등에서 채취할 수 있다.

◆저소득층 환자 돕는 엄홍길휴먼재단과 연세사랑병원

엄홍길휴먼재단은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연세사랑병원과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국내외 청소년 교육 사업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5월 설립했으며 청소년 희망원정대, 장애인 학생과 함께하는 산행, 개발도상국을 위한 의료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카티스템 무료 후원 협약 역시 엄홍길 대장의 이 같은 의지에서 비롯됐다. 엄홍길휴먼재단은 카티스템 후원을 주관하며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의료 서비스를 후원하는 연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난 2012년 엄홍길 대장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며 환자들의 관절 건강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고용곤 병원장과 엄홍길 대장이 무릎관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함께 청계산 등반에 나서기도 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전문병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세포치료연구소'를 설립해 무릎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의 지난해 줄기세포 치료의 연골 재생 효과가 국제 학술지 '더 니(The Knee)'에 게재되기도 했으며 줄기세포 치료 관련 연골 재생 효과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논문이 국제 학술지 아스로스코피(Arthroscopy)에 소개된 바 있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일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면서 "연세사랑병원과의 이번 후원 협약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보현기자

> **◆치료 후원 신청 방법**
>
>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캠페인 담당자)
>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홍보인 팝업창을 통해 신청

풍치 환자 4년새 25% 급증

아동·청소년 비중 9% 넘어

바람만 스쳐도 이가 시린 '풍치' 환자가 4년 새 25.3% 증가했다.

풍치는 잇몸에만 염증이 발생한 치은염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치주염으로 나뉜다. 치아 세균막인 플라크를 제때 제거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염증으로 인한 구취, 잇몸 고통, 씹을 때 통증 등이 나타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질병코드 K05) 환자는 2008년 673만 명에서 2012년 843만 명으로 늘었다. 관련 진료비는 같은 기간 2970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66.2%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3.1%, 2012년 기준)가 가장 많았으며 0~9세 아동(3.3%)과 청소년(6.3%)층에서도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해 전 연령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풍치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에 한해 매년 1회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김승남기자

이대의료원 조영주 교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1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영주 알레르기내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정구용 외과 교수를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에, 김영주 산부인과 교수(1963년생)를 이대목동병원 교육연구부장에 각각 선임했다.

새로 임명된 조영주 기획조정실장은 1984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이화여대 내과 교수로 근무해오고 있다. 이대의료원은 이번 인사 발령이 병원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건강기능식품 '꽃노년 시장' 활짝

최근 케이블 채널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속 탤런트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은 'H4'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노년의 매력을 과시 중이다.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열정과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꽃노년'을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단순히 건강만을 생각한 제품을 넘어 미용·기초 식습관까지 고려한 노년 전용 제품이 인기다.

고려은단의 '고려은단 비타민C 골드 프리미엄'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 1000mg에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비오틴과 타우린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노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피부 노화를 걱정해 선크림과 양산, 모자를 꼭꼭 챙기는 어르신들이나 바깥 활동이 적은 어르신을 위해 비타민D의 하루 섭취 권장량을 100% 추가했다.

풀무원 건강생활의 '그린체'는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로젠빈수'를 출시했다. 검정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여성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을 27mg을 함유하고 있으며,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가 입증된 백수오 등 복합 추출물을 주원료로 했다. 네덜란드산 보라지꽃 종자유에 저온 압착 기술로 추출한 감마리놀렌산은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은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등으로 나트륨 섭취에 예민한 소비자들을 위해 '3년묵은 천일염 굵은입자'를 선보였다. 청정 신안섬 갯벌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천일염을 3년 동안 자연 숙성시켜 간수를 뺀 제품으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맛내기용 소금에 비해 염도가 낮은 '천일염 맛소금'도 인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50~60대 세대들은 스스로를 실버 세대로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실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성향에서 젊은 세대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소득원과 구매력을 갖고 있는 노년 세대를 겨냥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람기자 kaeon@

가위질 당하지 않을 권리

뉴스룸에서
조성준
<연예스포츠부장>

요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논란과 관련해서다.

영등위는 지난달 30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영비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다"며 "2011년 박선이 위원장의 취임 후 제한상영가 영화가 크게 늘어났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그동안 증가한 영화 편수를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팩트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영등위의 모습은 인정할 만하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영화인들과 일반 관객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 조항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제한상영가 논란의 핵심은 법 조항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등급 분류 기준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과 영화인들 및 관객들의 권리 부재에 있다.

전자의 경우 있게 예를 들어 어느 영화는 제한상영가를 피해가고 또 어느 영화는 못 피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등급 분류 기준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원하는 권리는 소박하고 당연하다. 정성껏 만든 창작물을 흠집 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와 가위질당하지 않은 작품을 내 돈 내고 온전하게 관람하고 싶어하는 '감상의 자유'로, 민주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든지 희망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한 영등위의 태도는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유해 영상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아주 오래전 케케묵은 보호 논리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유해함의 수준을 과연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가 대단히 궁금해지고, 청소년을 제외한 이 나라의 구성원들이 합법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 아직도 관계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조금 늦었지만 영등위는 이제라도 등급 분류와 관련해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길 권한다. 언론 보도를 상대로 법 조항을 따지기에 앞서 제한상영가 전용관 마련 등과 같은 문제부터 주무부처와 손잡고 처결하길 바란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영상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세워진" 기구라면 응당 해야 할 일들이다. "우리 법대로 잘하고 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장외투쟁' 선언한 민주당의 미래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서울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과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또한 정치공작 진상 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 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바꿔 촛불집회 등의 투쟁을 벌인다고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 3가지 쟁점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만을 내세워 여당과 대치하는 모양이 됐다. 이 갈민이 NLL 문제나 정상회담 대화록 은폐를 덮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만 해도 민주당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직원을 매수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호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이 이를 말해준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대선 패배 이후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며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데 이어 김한길 대표를 선출해 새로운 지도그룹을 출범시켰지만, 좌충우돌의 연속이다. 대선 패배에 대한 자성론이 나왔지만 책임지는 지도부는 없고 당내 내분만 키우는 중이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당론이 갈라진 채 지도력이 상실돼 가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최근 들어 시대착오적인 막말로 위상이 실추됐다. 소속 정당의 원내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폄하한 일이 있다. 여기에다 전국을 돌며 벌인 집회 과정에서 비중 있는 인사들의 상식 이하 막언으로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 물론 당의 진로를 놓고 위기감을 느껴 일어난 일이겠지만 민주당의 강경 노선은 이제 민심을 제대로 독해해야 한다. 지난날 독재 정권 때 위했던 투쟁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 정치도 국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만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투쟁'이 아닌 '경쟁'으로 다음 대선에 나설 채비를 갖춰야 한다. 강경하고 투쟁적인 소모 정치를 고집할 경우 민주당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국민들의 실험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국정 파트너 역할에 충실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견제의 대안 제시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포토프리즘 그녀들의 '태양을 피하는 법'

2일 경기도 이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막을 올린 '2013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찾은 여성들이 잔디밭에 누워 양산을 쓴 채 더위를 피하고 있다. 무대 바로 앞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연 시작 전부터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롭게 편안히 누워 음악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 록 페스티벌에는 어떤 자세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감히 나랏님을 욕한 죄?

기자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지난달 말 프랑스에서 '대통령 모욕 금지법'이 130여 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간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면서도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폭지만 니콜라 사르코지의 '머저리 스캔들'이 결정타로 작용, 결국 사라지게 됐다.

2008년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은 한 시민이 자신과의 악수를 거부하자 "꺼져 머저리야"라고 말했다. 일명 '머저리 스캔들'로 프랑스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었다. 몇 달 뒤 지방의원 출신인 에르베 에옹은 이를 풍자해 '꺼져 바보 머저리야'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사르코지의 차 앞에서 흔들었다. 에옹은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니 에옹은 같은 표현에 대해 혼자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며 유럽인권재판소를 찾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치 풍자적인 표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에옹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대통령 모욕 금지법이 없으니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실제론 명예훼손죄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맘껏 모욕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미덕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정치 풍자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친구들과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때면 항상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야! 입 조심해.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

성경 이야기

인문학 산책
김면용
<성공회대 교수>

처음 강단에 오른 목사님이 열을 내며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키 작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과 밤 깊은 시각에 대화를 나누었던 유대 최고회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아니라, 난쟁이 세리 삭개오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목사님은 아직 자신의 실수를 눈치 채지 못한 채 계속 니고데모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었다. 사모님이 안절부절못했다. 열심히 준비한 첫 설교를 자칫 망치게 생긴 것이었다.

그제야 부인의 초조한 손짓을 발견한 목사님이 "그때 난쟁이 삭개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자 모두 잔뜩 숨을 죽였다. 진중 효과 백배였다. 난데없는 삭개오의 출현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어쩔 건가?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으왕? 이런 게 성서에 있었나? 사모님은 완전히 멍 상태가 되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어안이 벙벙해진 교인들은 그 다음 말에 더더욱 온통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야, 니고데모, 거기 내 자리거든. 빨리 내려와!"

이걸 기지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능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거나 교회 전체가 빵 터진 설교였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이야기가 본래 그런 줄로 생각하고, 또 이게 왜 그렇게 우스운 대목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인데 그대로 받아들이야지 별수 있겠는가. 설교가 끝난 뒤 분위기가 유쾌해진 것에 목사님은 기분이 무척 좋았다.

첫 설교가 대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그때 신입 교인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본래 삭개오 거였니요?" 당황한 목사님의 답은 더 걸작이었다.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유머의 출판 이상은 나의 창작이다. 그걸 밝히는 까닭은 애초의 이야기가 아쉬운 마음이 있어 개작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실수를 그 당장에 인정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걷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 참, 삭개오였지요. 죄송합니다!" 했으면 간단히 해결됐을 일이었다. 이걸 제대로 못 하면, 올라가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일도 때로 생긴다. 어떤 날에는 나무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날 흥분시켰다 괴물처럼 독특한 작품

개봉 나흘새 250만 '설국열차' 탑승

송강호

최근 몇 년간 후배들에게 최고 흥행 배우 자리를 내줬지만 송강호(46)의 저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크리스 에반스와 틸다 스윈튼, 에드 해리스 등 세계적인 톱스타들과 함께 탑승한 '설국열차'가 지난달 31일 개봉 이후 나흘 동안 전국에서 251만9181명을 불러모았다. 극중 열차의 보안 설계자 남궁민수 역으로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송강호는 명불허전의 강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꿈의 프로젝트 - 봉준호 무한신뢰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8년간 꿈어온 작품이다. 송강호에게도 오랜 기간 마음속에 담아둔 꿈의 프로젝트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오래전부터 출연을 합의한 그는 "봉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왔다"고 털어놨다.

"'괴물'이 그랬듯이 '설국열차'도 딴 배우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독특한 작품이죠. 일반적인 한국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깡패 아니면 형사. 제가 그렇고, 한국의 남자 배우라면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하는 캐릭터죠. 그런 점에서 '설국열차' 출연은 저를 흥분시킨 놀라운 시도였죠."

송강호는 과물에서 부녀로 호흡을 맞췄던 고아성과 함께 참여했다. 수많은 출연진 가운데 한국 배우론 단둘뿐이었다.

"촬영을 위해 체코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누구보다 잘 아는 감독이 함께하긴 했지만 전 세계에 상영될 영화에 세계적인 배우들과 공연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천 않았죠."

#할리우드 스타들 프로의식

막상 만나보니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인 똑같은 배우였다. 그가 미리 동료 배우들의 정보를 파악했듯이 그들 또한 송강호의 명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크리스 에반스가 봉 감독에게 '송강호가 연기할 때 진짜 사람을 때리는 것 같던데 나도 맞느냐'는 걱정을 털어놓는 걸 보니 무척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할리우드 스타가 이런 걱정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은 기대감이 생겼죠."

영화 시작 30분 만에 등장하는 등 주연을 맡은 작품 중 가장 적은 분량을 소화했지만 이번 영화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

"저보다 적게 나오는 틸다 스윈튼도 그렇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다들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 놀랐죠.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면서 전체를 우선으로 하는 공동 작업 속에서 그들의 프로 의식을 엿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한국 영화를 할 때 저도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 기차 보안설계자 남궁민수역
> 강한 존재감…역시 명불허전
> 할리우드배우 배려심에 놀라
> 자연스럽게 늙는모습 보일 것

#K-무비 글로벌화에 대하여

한국 배우들이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요즘, 글로벌 K-무비에 대한 그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병헌씨처럼 직접 진출해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한다면 더없이 좋죠. 하지만 생명력 있는 한국 영화를 통해 세계인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봉 감독의 섬세하고 빼어난 연출에 감탄한 배우들이 한국 영화를 더 알고 싶어 했고, 제가 출연한 '밀양'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글로벌화라 생각해요."

두 편의 전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고, 1년6개월간 공백기를 보냈다. 그러나 '설국열차'를 시작으로 9월 '관상'과 12월 '변호인'까지 하반기에만 세 편의 영화로 다시 '송강호 시대'를 연다.

"배우의 일이 스포츠 게임처럼 그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인 송강호와 일체 배우 송강호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일이죠. 때 작품에 얽매일비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나이를 먹으면 좋은 후배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나의 포지션을 찾아야 되죠. 단 이런 순리를 따르되 무기력하게 변용하지는 말자는 게 저 신념입니다."

/류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사진/박동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김하람

괌
자타공인의 청정지역!

[성인2+아동2]전용
★미시아이 전망대 관광
괌 PIC 골드 4일/5일
799,000부터 ▶8월~9월매일(일부제외)
●괌(3/4) ●대한항공/진에어 ●전일정 호텔식(석식 1회 스테이크 특식)

세미팩[관광+자유시간]
★WIFI 공유기 무료이용
괌 쉐라톤 호텔 4일/5일
799,000부터 ▶8월~9월매일(일부제외)
●괌(3/4) ●대한항공/진에어 ●쉐라톤 어드벤처투코이용
●아동동반 고객에게는 패밀리룸으로 업그레이드(요청조건)

셀프팩[자유관광]
★WIFI 공유기 무료이용
괌 힐튼 호텔 4일/5일
899,000부터 ▶8월~9월매일(일부제외)
●괌(3/4) ●대한항공/진에어 ●팔아일랜드 관광 현지식 1회 포함

사이판
위대한 자연! 최고의 휴양지

[성인2+아동2]전용
사이판 PIC골드 4일/5일
799,000부터 ▶8월~9월 매일(일부제외)
●사이판(3/4) ●아시아나항공 ●전 일정 호텔식 골드카드(석식 1회 외부식)

오전출발/패밀리팩
[성인2+아동2]전용
사이판 월드리조트 4일/5일
729,000부터 ▶8월~9월매일(일부제외)
●사이판(3/4) ●아시아나항공 ●원주민 BBQ 디너쇼 포함 마나가하섬 관광

오전출발/기본일정+
원주민디너쇼 BBQ
사이판 월드리조트 4일/5일
999,000부터 ▶8월~9월매일(일부제외)
●사이판(3/4) ●아시아나항공 ●마나가하섬 관광 및 아동도우미 서비스 포함

팔라우
최고의 바다! 숨겨진 보석

[디자인 팔라우]
일급호텔
팔라우 ●팔라우(4/5) **5일/6일**
599,000부터
▶8월~9월 매주 목,일요일 출발(8월28일~9월30일 매주 수,토요일 추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지공항세 $50 포함, 팔라우 시내관광

준특급
씨패션 호텔
팔라우 ●팔라우(4/5) **5일/6일**
799,000부터
▶8월~9월 매주 목,일요일 출발(8월28일~9월30일 매주 수,토요일 추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지공항세 $50 포함, 팔라우 시내관광

초특급 팔라우
퍼시픽리조트
팔라우 ●팔라우(4/5) **5일/6일**
1,199,000부터
▶8월~9월 매주 목,일요일 출발(8월28일~9월30일 매주 수,토요일 추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지공항세 $50 포함, 팔라우 시내관광

예약문의 1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77-1212
강남점 02)548-1821

www.hanatourist.com

멀티캐스팅 영화 흥행 잇는다

개성만점 주인공 여럿 출연 '나우 유 씨 미' 연기 기대

22일 개봉될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이하 '나우 유 씨 미')이 '뭉쳐야 산다'는 요즘 흥행작들의 '대세' 속설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전망이다.

최근 2년간 극장가를 살펴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명의 톱스타들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멀티 캐스팅' 영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어벤져스'와 '도둑들'을 시작으로 전국 관객 600만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감시자들'과 '레드: 더 레전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작품은 혼자 나서도 충분한 주연급 배우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캐릭터로 동료들과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한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자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기호를 반영한 추세인데, 반면 '원톱' 혹은 '투톱'을 앞세운 몇몇 작품들은 기대 이하의 흥행 성적에 머물곤 한다.

올여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대미를 장식할 '나우 유 씨 미' 역시 개성 만점의 캐릭터들이 펼쳐내는 '팀워크 플레이'가 볼 만하다.

재빠르고 빈틈없는 완벽한 트릭으로 마술쇼를 계획하는 하이테크 매직팀 '포 호스맨'의 리더이자 작전 설계자인 아틀라스(제시 아이젠버그)의 지휘 아래 상대방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멘탈리스트 메리트(우디 해럴슨)와 탈출 마술의 귀재 헨리(아일라 피셔), 눈보다 빠른 손놀림을 자랑하는 잭(데이브 프랑코)이 라스베이거스와 프랑스를 오가며 신출귀몰한 도난극을 펼친다.

이들 외에도 형사 딜런 역의 마크 러팔로를 비롯해 모건 프리먼과 마이클 케인 등 신구 연기파들이 가세해 캐스팅 명단만으로도 일단 기선을 제압한다.

수입사 측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개념 케이퍼 무비(범죄를 소재로 범죄 과정에 초점을 맞춘 영화)로, 저마다의 개성과 특기를 자랑하는 캐릭터들을 한꺼번에 보는 맛이 아주 쏠쏠하다"며 흥행 성공을 자신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wind8686@naver.com

주연배우 호프먼의 힘!

'마지막 4중주' '마스터' 화려한 성적

영화 '마지막 4중주'(왼쪽)와 '마스터'에서의 필립 세이모어 호프먼

필립 시모어 호프먼이 주연한 '마지막 4중주'와 '마스터'가 여름철 쟁쟁한 국내외 화제작들 사이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흥행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개봉된 '마지막 4중주'는 상영 9일 만인 2일 전국 누적 관객 2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예술영화를 가운데 최다 관객 수(8만 명)를 자랑하는 '아무르'가 2만 명 돌파까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빠른 흥행 속도다.

또 스크린 수 30개 미만 다양성 영화로 최다 관객(7만3524명)을 불러모은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보다도 닷새나 먼저 2만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와 최고의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다퉜던 '마스터'는 지난달 11일부터 3일까지 전국에서 2만8686명을 동원했다. 17개에 불과한 스크린 수를 고려하면 대단한 선전이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호프먼은 '마지막 4중주'에서 파킨슨병에 걸린 동료와 함께 마지막 연주에 나서는 비올리니스트를 연기한다. '마스터'에선 신흥 종교 지도자로 변신해 불같은 카리스마를 과시한다. /조성준기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역사 한눈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특별전'이 한국영상자료원 주최로 14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에 위치한 시네마테크KOFA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대부'와 '죠스', '에일리언' 1·2편, '미지와의 조우', '타이타닉', '킹콩', '프로메테우스' 등 모두 13편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상영된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세부 상영 일정은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www.koreafil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iN
www.nhis.or.kr
건강검진은
평~생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 40세와 만 66세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
암검진
영유아검진
4 · 9 · 18 · 30 · 42 · 54 · 66개월
건강검진은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his.or.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날씨

8/5 月 일출시각 05:39 일몰시각 19:3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은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입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식중독에 노출되어 설사를 할 경우 탈수에 빠져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5				6	7	1		
	2		5					
			4			5		9
	8					4	5	
	7						1	
	1	5					9	
1		3			2			
					9		7	
		9	3	8				2

								6
	7	9	2			5		
	4		3	7			1	
6				9				
			6	3	1			
				8				7
	8			4	7		3	
		2			5	9	4	
1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보누스
펜샤 스도쿠 플래티넘 (마이클 릭오스 지음)

서비스의 격차

임경선의 모놀로그

여름휴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나가면 우리가 일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현지 사람들의 서비스다. 내가 지불하는 돈의 금액과 별개로 우리는 현지인들의 고유한 서비스 마인드와 문화를 엿보게 된다.

서비스가 좋으면 신경이 안 쓰이지만 서비스가 안 좋으면 이곳이 내 나라가 아님을 감지한다. 불친절하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후진성을 탓하고,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면 동양인이나 한국인이라서 얕보는 건가 싶다. 어느 쪽이든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패르르 예민해지며 유가 좋아 스트레스받을 필요는 없다. 그 나라의 서비스 스타일은 그 나라의 문화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나라의 팁 문화가 한국인 입장에선 귀찮고 이해가 안 가지만 좋게 생각하면 팁을 준 쪽은 서비스를 받아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팁을 받은 쪽은 내 서비스를 고맙게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셈이니 '고마움'의 품앗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선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부탁하면 융통성 있게 상황을 봐주기도 해 그런 틈이 얼핏 안 통하고 무조건 원칙대로 하면 서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하나만의 편리성을 넘어 모두의 안전과 질서 때문에 가치관이 개입하는 것이기도 하다. 거친 목소리로 무뚝뚝한 남자의 전화 응대를 받으니 고객 대우를 못 받는 느낌이 든다. 해도 필요한 것만 해결되면 되지, 젊은 여성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극존칭 붙여가며 예우를 받아야 그것이 궁극의 고객 서비스인가?

나 역시도 휴가 여행지에서 현지 항공사와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해봐도 먹통이라 불편했었고 귀국하자마자 에어컨 AS를 맡기니 바로 총알 친절 서비스를 받아 이 격차에 놀라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생각은 없다. 외국에서 우리가 느낀 낯선 불편함이나 서운함은 그 나라가 가진 다른 좋은 점들과 맞물려 받아들여야 한다. 그 나라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서운함은 어차피 우리가 고칠 수도 없다. 여행지에선 여행지의 페이스를 따르며 며칠간 현지인처럼 살다가 올 뿐이다.

/칼럼니스트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월급 안 오르고 동료와도 불화 이직 생각 말고 회사업무 연구

황이투 여자 81년 12월 28일 양력 오후 12시30분

Q 10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급하게 직장에 취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오르지 않고 정년 보장도 되지 않는 데다 같은 부서 사람들과도 잘 맞지 않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직장운, 재물운이 없는 건지요?

A 불이 생솟는 바위의 모습으로 광천주길 같아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근본적으로 좋은 사주입니다. 아쉽지만 관인(官印)이 나를 생해주는 오행과 비견(比肩 동급의 오행)이 왕성해 사물의 발전을 간과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일로 복을 털어버리기 때문으로 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력을 갖춰야 인정을 받게 되니 이직 생각할 시간에 회사 일을 좀 더 연구하십시오. 천을귀인(하늘이 도와줌)이 힘을 실어주게 되니 주변의 칭찬을 받고 세월이 갈수록 주위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상상(心想)을 넓히고 외신상담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객관성을 기르십시오.

맞벌이하는데 돈이 안 모아져 37세이후에 운 좋아지니 명심

육진평 여자 81년 1월 8일 음력 오후 5시30분
남자 76년 8월 28일 음력 오전 5~7시

Q 2년 전 새로 장만한 집이 다른 건 마음에 드는데 일조량이 부족해서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알아보니 마땅히 갈 곳도 없네요. 맞벌이 부부인데 늘 생각만큼 돈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고 회의가 듭니다. 사무직(회계관련)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계통 말고 다른 거 쪽에서 일을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A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사주를 알면 겸손해진다고 했습니다. 귀하는 간여지동(干與支同 천간과 지지가 같음)으로 석류와 같은 형상이라 가시로 변하는 일은 가지와 같습니다. 무언 설움을 하자면 신경이 날카롭고 내강(內剛)의 전형으로 겉은 원만해 보여도 그 마음은 고지식하여 번잡한 것을 싫어하지만 일을 잘 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에 대한 번민이 많은데 한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내줘 남에게 속게 되고 늘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일이 이쉬워하게 됩니다. 37세 이후부터는 운이 좋아지니 복지부동하도록 하십시오. 마음가짐을 차분히 하고 지내다 보면 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언제 '사주 속으로'에 월 일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점[散占] 운세

8월 5일 (음 6월 29일) 김특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작은 말들의 씨가 되니 삼가라. 60년생 짜증 내면 손해만 본다. 72년생 운세 호름이 좋으니 포부를 크게 가져라. 84년생 의심이 심하면 당신만 산다.

소 49년생 서두르면 뒤탈이 생긴다. 61년생 기다리던 사람 만날 듯. 73년생 덤벙대면 귀중품이나 문서 잃어버린다. 85년생 사람이 혼잡할 땐 냉각기가 필요하다.

호랑이 50년생 친구를 돕는 셈이 일찾아 보자. 62년생 고달픈 일상은 개선된다. 74년생 성향이 너무 곧으면 외로운 법이다. 86년생 구직자나 수험생은 발전이 있다.

토끼 51년생 조급하면 귀중한 것 놓친다. 63년생 비갈 앞의 동물이니 신중히 처신할 것. 75년생 계획 늦으면 결과도 늦다. 87년생 구설수 있으니 끊고 맺음 명확히~

용 52년생 어른사람 말 귀담아들어라. 64년생 알찬한 즐기는 하루. 76년생 결심했으면 일이단 집중할 것. 88년생 주도한 일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씩 결실 맺는다.

뱀 53년생 상처받은 마음 치유된다. 65년생 변화 두려워 말고 밀고 나가라. 77년생 상사와 상의하면 좋은 답 된는다. 89년생 데이트 있으니 출근 복장 신경 써라.

말 42년생 당장 손해 봐도 순리 따르라. 54년생 자금난은 일이 호전된다. 66년생 당분간 세월 낚으며 때를 기다려라. 78년생 갈등을 치유하는 데 대화가 명약이다.

양 43년생 혼자서 볼길 소일거리 생긴다. 55년생 뜻을 이루려면 사소한 굴욕은 감수하라. 67년생 가슴에 단비 내린 격이다. 79년생 신뢰가 생명이니 약속 꼭 지켜라.

원숭이 44년생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 늘려라. 56년생 가장의 당당한 주제로 일어선다. 68년생 뚝심가 뱃 대문에 괴로운 날. 80년생 일이 마음대로 풀려 즐거워진다.

닭 45년생 원예를 지키는 게 우선. 57년생 권모술수 능한 사람 접근하니 경계하라. 69년생 과감한 투자로 공을 출근다. 81년생 고민은 털어놓으면 가벼워지는 법.

개 46년생 바라던 선물 받고 기분 업. 58년생 물량 공세는 독보다 실. 70년생 감정 기복이 심한 날이니 참고하라. 82년생 습관을 바꿔 생활에 변화 주는 게 좋다.

돼지 47년생 집안일에 중심을 잡아야 한다. 59년생 자존심을 너무 세우지 마라. 71년생 새로운 취미에 빠져 하루가 즐겁다. 83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곧 일에 당도.

star bag

"조용히 전역… 당분간 자숙"

연예병사로 복무한 가수 KCM이 4일 오전 전역했다.

이날 KCM 측은 "전역 장소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많은 팬들이 왔지만 별다른 인사 없이 자리를 떠났다"며 "당분간 자숙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초 지난달 31일 제대할 예정이었던 KCM은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4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아 전역 날짜가 미뤄졌다.

오픈마켓 '11번가' 새 얼굴

걸그룹 씨스타가 오픈마켓 11번가 의 새 모델로 나선다.

소속사는 "아이유의 바통을 이어받아 새 광고 모델로 1년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11번가 측은 "씨스타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가 브랜드 지향점과 잘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팀의 리더 보라는 "평소에도 숙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에서 자주 구입하곤 한다"며 모델 발탁을 기뻐했다.

공연장 아닌 창고서 콘서트

록밴드 YB가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성동구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기획사에 따르면 이들은 '9집 앨범 발매 기념 거라지 콘서트 - 창고대란'이란 제목으로 이번 무대를 마련한다. 기획사 측은 "창고 특유의 빈티지한 매력과 음반 성격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전했다.

19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한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객들은 스탠딩으로 주류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핑크테이프' 음원차트 점령

선그룹 에프엑스가 발표한 2집 '핑크테이프' 수록곡들이 음원차트를 휩쓸었다. 타이틀곡 '첫 사랑니'와 '미행'이 8월 첫째 주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굿바이 서머'는 8위에 올랐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킬 빌'이 '첫 사랑니'의 뒤를 이었고, 지난주 2위였던 에일리의 'U&I'는 4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도의적 책임…아버지로서 사죄"

차승원, 아들 성폭행 논란에 심경글 … "진위여부 떠나 통탄스러워"

톱스타 차승원(사진)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들을 대신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차승원은 3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배우 차승원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먼저 가슴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며 "모든 진위 여부를 떠나 현재의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통탄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날 밤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차승원씨가 직접 쓴 글"이라며 "민감한 사항이므로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 향후 소속사 차원의 공식입장 발표는 아직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아들 차모씨는 여고생 A양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A양은 고소장에서 "차씨가 지난달 약 2주동안 양쪽의 집과 방 등을 오가며 수차례에 걸쳐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했다"며 "이는 오빠 동생 사이로 어울렸지만, 그런 언니자로 말한 뒤 차씨로부터 이 같은 일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차승원의 아들 측은 "교제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스물네 살인 아들은 미국에서 사춘기를 보내고 지난해 돌아와 한때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나, 지금은 팀에서 방출된 상태다. 올봄에도 한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이 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고친 자식 때문에 속썩은 해외 톱스타 누가 있나

마약 손댄 더글러스 아들 상습 음주운전한 깁슨2세

부와 명성을 자랑하는 연예계 톱스타들도 자식 문제 만큼은 어쩌지 못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그렇다.

세계적인 명배우 말론 브랜도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에 휘말려 말년을 불행하게 보내야만 했다.

법정에 불려다니느라 파파라치의 표적이 됐고, 아들은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오빠의 손에 남자친구를 떠나보낸 딸은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 커크 더글러스의 뒤를 이어 할리우드 톱스타로 오랫동안 군림 중인 마이클 더글러스(사진 왼쪽) 역시 사고뭉치 아들 탓에 골머리를 앓은 경우다.

그가 첫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캐머런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배우로 활동했는데, 2009년 마약 거래 혐의로 수감됐다. 당시 마이클 더글러스는 "일에 빠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애통해 했다.

자식이 '웬수'인 톱스타로 리어언 오닐과 멜 깁슨(오른쪽)도 빠질 수 없다. 우리에게 '러브스토리'로 익숙한 오닐의 아들은 2008년 마약 소지 혐의로 감옥에 갔고, 깁슨의 아들은 아버지처럼 음주운전을 일삼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재활센터 신세를 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부모의 화려한 이름값이 성장기에 오히려 소외감과 외로움 등 독으로 작용해 잘못 자란 케이스"라고 귀띔했다.

/조성준기자

장난기 많은 문근영·이상윤 커플 문근영(오른쪽)과 이상윤이 MBC 월화극 '불의 여신 정이' 촬영장에서 장난기 가득한 커플 사진을 합작했다. 5일 방송될 11회에선 남장을 벗은 정이(문근영)가 광해(이상윤)로부터 애정을 배우는 모습이 그려진다.

▶ 세월이 흘러도 문근영의 얼굴은 언제나 그 자리에!

/유순호기자

소울다이브 "우승 0.1%도 생각안해" 최강록 "요리 내 삶의 52% 되었어요"

쇼미더머니·마세코 우승자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쇼미더머니 2'와 요리 서바이벌 올리브 '마스터셰프 코리아 2'(이하 마세코2')의 우승자가 지난주 가려졌다.

2일 열린 '쇼미더머니 2' 최종 무대에선 힙합 그룹 소울다이브가 정상에 올랐다. '괴물 래퍼' 스윙스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 파란을 일으킨 이들은 자조를 상대로 자신들의 신곡 '미싱'을 선보여 우승 트로피와 상금 719만원을 챙겼다.

현재 정규 2집을 준비 중인 소울다이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승은) 0.1%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냉면산과 아이돌이란 슬로건을 빼버릴 수 있는 기회도 안였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같은 날 펼쳐진 '마세코2' 결승전에선 만화 속 요리에 일가견을 자랑하는 최강록(사진)이 김태형을 누르고 상금 3억원과 프리미엄 냉장고, 자신의 이름을 건 레시피 프로그램의 진행 기회를 거머쥐었다.

결승전은 '마스터셰프의 꿈을 담은 3가지 코스 요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강록은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을 테마로 잡아, 전식과 본식으로 송화단을 넣은 전복죽 & 니박김체 국물로 맛을 낸 샐러드'와 '민물장어 소금구이 & 간장조림'을 각각 선보였다. 이어 후식으론 '참깨두부와 복분자 소스로 버무린 머스캣'을 만들었다.

심사위원단은 "전체적으로 느끼할 것 같았는데, 맛의 균형이 돋보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강록은 "이제껏 요리는 내 삶에서 51%의 비중이었는데 우승으로 52%가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조성준기자

어! '감시자들'에 메트로신문 나오네

▶주요 장면에 소품 '볼거리 가득'

영화 '감시자들'이 전국 관객 600만 고지를 바라볼 만큼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메트로신문이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이 줄거리 전개와 사건 해결의 핵심 장면에 중요 소품으로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영화 첫 장면에서 지하철에 탄 황 반장(설경구)이 메트로신문 운세 면을 펼쳐보며 승객으로 위장해 하윤주(한효주)를 테스트하고요. 종반부에는 황반장이 메트로신문에 난 오늘의 운세를 참고해 하윤주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설경구는 인터뷰에서 "촬영 현장이 달라도 소품팀에서 매번 메트로신문을 갖다줬다"며 "지하철을 안 타 평소에는 몰랐는데 볼거리가 무척 많다는 걸 새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윈튼 동안 비법은 노메이크업

영화 '설국열차' 홍보를 위해 지난주 내한한 영국 배우 틸다 스윈튼의 동안 비법은 노메이크업이었습니다. 그는 54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무결점 피부를 과시했는데요.

세계적인 톱스타임에도 레드카펫과 기자회견 등 주요 행사에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없이 얼굴에 비비크림 하나만 바른 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소탈한 성격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매니저도 없이 한국을 찾은 그는 의상과 헤어 등 모든 준비를 혼자서 책임졌고 막내 홍보 직원과도 직접 소통하며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보사의 한 직원은 "담담한 성격과 온화한 심성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목들 배우들 "바쁘다 바빠"

지난주 인기리에 막 내린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의 출연 배우들이 드라마의 성공에 힘입어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바쁜 주인공은 단연 이번 드라마를 통해 종석앓이 수하앓이 열풍을 일으키며 톱스타로 부상한 이종석인데요. 종영하자마자 밀린 광고를 촬영하는 와중에 '노브레싱' '피끓는 청춘(가제)' 등 두 편의 영화를 한꺼번에 찍느라 너목들 팀에게 주어진 포상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됐다고 하네요. 게다가 9월엔 영화 '관상' 개봉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니 올 하반기 가장 바쁜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종영 다음날 오랜 연인 지성과의 결혼을 깜짝 발표한 이보영 역시 다음달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새 작품에 바로 출연할 계획이라 신혼여행을 나중으로 미뤘다고 하네요.

또 이번 작품을 통해 10년 만에 무명을 벗은 이다희도 바쁘기로는 예외가 아닌데요. 지금의 인기 여세를 몰아 이번달부터 당장 차기작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니 '자고 나면 스타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CJ계열사 다니는 상류층 딸들 마다 할리우드"

전·현직 국세청 최고 간부들이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줄줄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CJ가 국세청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을 그룹 내 계열사인 CJ E&M에 입사시키는 방법으로 이들을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과 관련해 CJ E&M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 드라마 외주 제작사의 프로듀서는 흥미로운 얘기를 털어놨는데요.

이 프로듀서는 "국세청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류층으로만 꾸려진 팀이 사내에 있다. 팀원들 대부분이 외국 유학파 출신으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강남 고급 주택가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며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옆 부서 사람들조차 잘 모르더라. 업무 지시도 그룹내 최고위층으로부터 따로 받는 것 같았다"고 귀띔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이들이 우리나라 연예계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말끝마다 할리우드를 들먹이는데 아주 짜증이 났다"고 덧붙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연예부

애들아, 전통선율·팝송에 빠져봐

의정부 예술의전당 '청소년 음악회' 10·13일 개최

의정부 예술의전당이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위해 10일과 13일 '2013 청소년 음악회'를 마련한다.

이번 시리즈의 첫 무대는 1·2부로 나뉘어 지휘자 김남윤과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1·2번 연주와 뮤지컬 하이라이트로 꾸며진다.

특히 2부에서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원스 어폰 어 드림' '섬원 라이크 유' 등과 '레미제라블'의 '온 마이 오운' '브링 힘 홈' 등 우리에게 익숙한 뮤지컬 수록곡들을 소프라노 강민성-테너 김영진의 하모니로 선사한다.

13일 무대는 '펀펀 교과서 음악회'란 부제로 펼쳐진다.

전문 성악 단체 프렌즈 싱어스와 예연시현·한국악앙상블이 손잡고 가곡 '향수'와 오페라 아리아 '투우사의 노래' 등 교과서에 수록된 곡들 및 비틀스의 히트곡 등 팝송과 전통 음악으로 청소년들과 교감의 시간을 나눈다.

문의 의정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 031)828-5841~2.

창작극 '형제는 용감했다' 日 공연 커튼콜 기립박수

창작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가 일본에서 성황리에 공연 중이다.

이 뮤지컬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는 두 형제가 아버지의 부고를 접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형제애를 되찾는다는 내용으로, 전통 가락에 록을 합친 음악과 춤사위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공연 닷새째인 3일 도쿄 롯본기의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에는 가족 동반과 부부 관객들이 이어졌다. 다채로운 극 전개 및 주연 김도현과 지창욱의 열연에 매료된 관객들은 커튼콜 때 기립 박수를 쏟아냈다.

관객인 가쓰사마는 "장례식을 배경으로 이 같은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흥미로웠다"며 "한국의 효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일본 공연에선 김도현과 지창욱의 뒤를 이어 김재범과 조강현이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연합뉴스

음악으로 소통하는 아버지와 아들

창작 라이브 밴드 뮤지컬 '스타라이트'가 대학로 꿈빛극장에서 공연 중이다.

지난달 26일 막을 올린 이 뮤지컬은 1992년 밴드 스타라이트의 리더 아빠 범준과 2013년 K-팝 싱어송라이터 아들 별빛이 시대를 넘어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서로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로, 라이브 밴드가 110분간 무대에서 24곡의 곡을 연주한다.

그룹 시나위의 보컬 출신 작곡가인 조범준과 모델 신지훈·김봉규·천용률·영화배우 이상형이 직접 연주를 하면서 연기를 펼친다.

공연은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문의 02)2281-6678

밴드뮤지컬 '스타라이트' 공연

늦여름 휴가는 제주신라호텔로!

'문라이트 서머S' 패키지 S카 6시간·라운지S 무료

복잡한 극성수기를 피해 조금 늦은 휴가를 떠나는 실속파 여행객이 늘고 있다. 제주신라호텔이 늦깎이 여행족을 위해 나이트 무비, 문라이트 스위밍 등 이국적이고 로맨틱한 밤을 즐길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과 내 자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S카와 라운지S 무제한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문라이트 서머 S 패키지'를 선보인다. 특히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신라 패키지 투숙 고객들에게는 비치백과 비치타올도 선물한다.

◆제주신라만의 프리미엄 서비스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제주신라호텔의 프라이빗한 서비스가 시작된다. 제주도에 있는 호텔 중 유일하게 제주국제공항에 공항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어 고객의 짐 운반부터 호텔 셔틀버스 안내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텔에 도착하면 바로 객실로 이동, 객실에서 편안하게 앉아 체크인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체크인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또한 5층에 위치한 라운지 S에서 밤 12시까지 음료와 디저트를 무제한 즐길 수 있는 특전과 자기가 필요한 시간만큼만(최대 6시간)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S카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름밤 즐기는 스위밍의 낭만

패키지 투숙객들은 밤하늘에 드리워진 야자수와 제주의 달빛 아래서 라이브 음악 공연을 감상하며 밤 12시까지 '문라이트(달빛) 스위밍'을 즐길 수 있다. 투숙 중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머 기간에는 야외 수영장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문라이트 캐리비안 파티'가 펼쳐진다.

이 밖에 깜깜한 제주 바다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나이트 비치 시네마', 유명 영화의 OST 선율 아래 세계의 와인을 맛보는 '시네마 와인 파티' 등 로맨틱한 밤을 즐길 수 있다.

패키지에는 레저 전문 직원 GAO와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걸으며 제주의 여름밤을 만나는 문라이트 트레킹 2인 무료,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자연주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더 파크뷰 조식 2인, 객실 인터넷 무료 등도 포함된다.

매일 밤 야외에서는 유명 영화의 OST 선율 아래 제주의 바다를 감상하며 세계의 와인을 맛보는 '시네마 와인 파티' 2인 입장권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패키지에는 문라이트 트레킹 2인 무료, 더 파크뷰 조식 2인 등이 포함된다. 1588-1142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올해 추석 물가 전망

사과·옥돔 내리고 배·굴비는 오른다

풀할 속에 치러야 하는 올 추석 명절(9월 19일)에 예년보다는 사과 선물세트가 실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가 4일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작황이 좋은 사과와 어획량이 늘어난 옥돔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물세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과일의 경우 배가 평년보다 10~20% 오르고 사과는 1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올해 사과 세트 수량을 지난해보다 20% 늘리고 30%가량 저렴한 3만원대 사과 세트도 선보일 계획이다.

수산물 중에서는 옥돔 가격이 10% 이상 내려가고, 반대로 굴비 가격은 어획량 감소로 5~10%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우 고깃값 또한 5~10%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공 생활용품 세트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롯데마트 측은 내다봤다. /전효순기자 hsjeon@

홈플러스 '브랜드 기프트카드' 4종 추가 출시 4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신규 론칭한 '브랜드 기프트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계절·외식·커피·영화 등 6가지 브랜드의 기프트카드를 판매 중으로 이번에 4종을 추가로 내놨다. 8월까지 신규 론칭한 탄케시(온라인게임 선불카드) 카드 구매 시 10% 추가 충전 혜택을 준다. /홈플러스 제공

반쪽장마탓 여름특수도 반쪽

제습기 중부·수박 남부 집중

중부지방엔 폭우가 쏟아진 반면 남부지역엔 폭염이 기승을 부린 '반쪽 장마' 탓에 올여름 특이한 제품 판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제습기는 중부지방에서, 수박은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잘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가 지난달 매출을 분석해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습기 전체 판매의 82.3%가 중부지방에 몰렸다. 제습기 판매는 중부지방에서 126% 판매가 늘었지만 남부지방에선 13% 감소했다. 수박은 전체 소비의 절반에 가까운 45.4%가 남부에서 팔렸다.

비가 계속 이어진 중부지방에서는 아이스크림 판매도 감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떨어졌다. 수영복과 물놀이용품 판매도 각각 13.0%, 6.3% 줄었다.

한편 올여름 장마가 50일 넘게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은 '장마 특수'를 본 분위기다.

비가 와 집 안에 머물며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들로 인터파크의 경우 지난달 제습 상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션에서도 제습 관련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80%, 11번가에서는 150% 뛰었다. /전효순기자

서래마을 입소문난 그 호텔 버블브런치·뷔페 30% 할인

서울팔래스 '스톤플레이트'

특1급 서울팔래스호텔 뷔페&레스토랑 '스톤플레이트'가 개관 31주년을 기념해 점심 버블브런치 또는 주중 저녁 뷔페를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스톤플레이트는 지난 1월 '자연주의' 콘셉트로 새롭게 리뉴얼한 이후 반포·서래마을 일대의 직장인들과 주부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톤플레이트는 자연을 뜻하는 스톤(stone)과 요리를 뜻하는 플레이트(plate)의 합성어로 식재료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린 신선한 요리를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중 점심과 낮 시간 동안에는 알 라 카르트(A la Carte)·건강 한식 브런치·건강 세트·프리미엄 런치 세트·모던&라이트한 건강식 메뉴 그리고 그 밖의 메인 요리 등으로 마련, 취향에 따라 친환경 샐러드 바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 31주년을 맞은 서울팔래스호텔이 프로모션으로 진행되고 있는 '버블 브런치'는 베스트셀러 메뉴. 브런치 메뉴 주문 시 식전 건강 주스 또는 무제한 스파클링 와인을 시작으로 샐러드 바, 디저트로 커피 또는 차까지 모두 4코스 요리를 3만원(세금, 봉사료 포함)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주중 저녁과 주말 점심·저녁에는 갖가지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뷔페로 탈바꿈한다.

서울팔래스호텔만의 비밀 레시피로 만든 프리미엄 립아이 LA 갈비를 비롯해 셰프가 직접 즉석에서 참숯 그릴에 구워주는 양고기·안심 스테이크·대서양 훈제 연어 요리, 오리엔탈 베이징 덕 요리와 최고급 블도장·프랑스의 에스카르고 등 세계 각국의 최고급 요리 150여 가지를 맛볼 수 있다.

/박지원기자

■서울팔래스호텔 스톤플레이트 31주년 프로모션 쿠폰 지참시 이용 가격

*디너 뷔페: 1인 6만7500원 30% 할인 → 4만725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버블 브런치: 1인 3만원 30% 할인 → 2만1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문의: 02)2186-6885~6 (사전 예약만 가능)

하프클럽 유명 브랜드 의류 최대 95% 할인

패션 브랜드 온라인몰 '하프클럽'이 5일부터 7일까지 여름 의류를 최대 95% 할인하는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하프클럽 운영 12년 만에 처음 있는 최대 할인 행사로 국내 유명 브랜드 총 30개가 참여해 의류 총 20만여 점을 80%에서 최대 9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한정 판매한다.

특히 캐주얼 티셔츠의 경우 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 판매뿐 아니라 정가 4만9000원의 제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초특가 행사도 벌일 예정이다.

남성 재킷·셔츠는 1만원, 여성 재킷·원피스는 5000~1만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하프클럽 영업 총괄 이승재 팀장은 "온라인 쇼핑몰 최초로 진행되는 패밀리 세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하프클럽은 고객 충성도 강화 및 신규 회원 확보, 비수기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www.halfclub.com /박지원기자

가족단위 '호텔 바캉스족' 추가객실 반값

그랜드 힐튼호텔 여름 패키지 알찬 프로모션 넘치네

멀리 떠날 수 없다면 도심 속 바캉스가 대안이다. 한적한 특급호텔에서 럭셔리한 휴가를 보내는 건 어떨까.

그랜드 힐튼 호텔이 여름 패키지 예약 고객에 한해 추가 객실 예약 시 반값에 제공하는 '1과 2분의 1' 프로모션'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그랜드 힐튼 호텔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호텔 객실 이용 시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투숙할 수 없어 가족 단위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 특급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었으나 인원 제한으로 망설였던 고객들에게 여름 패키지 추가 객실에 한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적용 대상은 본관에서 투숙할 수 있는 '홀리데이 인 더 시티 패키지'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웹사이트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객실을 파격적인 가격 9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에 선보이는 반짝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여름 패키지 프로그램이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합리적인 가격에 호텔 패키지의 하이라이트만 경험하고 싶다면 디럭스룸에 투숙하며 뷔페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즐길 수 있는 '홀리데이 인 더 시티 I 패키지'가 제격이다. 가격은 18만2000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이며, 한식당·중식당 에이트리움 카페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관에서 진행되는 '여름 패키지 홀리데이 인 더 시티 II 패키지'는 귀빈층 라운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룸 투숙이 가능하다.

귀빈층 라운지 조식 및 해피아워 서비스와 함께 에이트리움 카페에서 웰컴 팥빙수를 즐길 수 있다. 바캉스의 팁을 얻을 수 있는 '인스타일 바캉스 특집 매거진'과 DHC 선크림 키트·클렌징 키트도 포함돼 있다. 가격은 23만5000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홀리데이 인 더 시티 III 패키지'는 주니어 스위트룸에서 1박 투숙과 함께 귀빈층 라운지 조식 및 해피아워 서비스가 제공된다. 저녁에는 이에리칸 그릴과 몽골리안 바비큐가 무료로 제공된다. 남산 케이블카 무료 이용권 2매도 선물로 준다. 가격은 35만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 문의 02)2287-8400

/박지원기자

'바닐라코 남성용 CC크림' 전속모델 로이킴 팬 사인회

베이스 메이크업 브랜드 바닐라코가 지난 2일 국내 최초의 남성용 CC크림(시시크림)인 '잇 래디언트 멀티폼 CC 포 맨'의 출시를 기념,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전속 모델 로이킴의 팬사인회를 진행했다.

이날 바닐라코 매장에는 로이킴의 사인을 받기 위해 이침부터 팬들이 모여드는 등 성황을 이뤘다. 로이킴은 소비자들에게 친필 사인과 함께 잇 래디언트 멀티폼 CC 포 맨, 잇 래디언트 CC크림 등 2종의 미니어처를 선물했다.

로이킴의 'CC크림'으로 알려진 잇 래디언트 멀티폼 CC 포 맨은 남성 피부에 최적화시킨 제품으로 유분기가 많은 남성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만들면서 피부톤과 결을 균일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전효순기자

'김진우 9승' 살아난 KIA

넥센 꺾고 4연패 탈출…'히든 카드' 윤석민 마무리

KIA가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에이스 윤석민을 마무리로 바꾸는 초강수를 두며 일단 연승을 올렸다.

6위 KIA는 4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넥센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 김진우의 역투를 앞세워 6-0 승리를 거두고 4연패 사슬을 끊었다. 주말 경기가 없었던 5위 롯데와의 격차를 두 경기로 좁혔다.

김진우는 8회까지 2안타만 내주고 9개의 삼진을 뽑아낸 무실점 호투로 시즌 9승(5패)째를 챙겼다.

최근 어려운 팀 사정을 감안해 마무리를 자청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민은 이택근을 삼진으로 잡고 박병호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했지만 김민성을 다시 삼진으로 돌려세워 경기를 마무리했다.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한 KIA 에이스 윤석민(오른쪽)이 포수 김상훈과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뉴시스

문학구장에선 원정팀 두산이 9회 터진 김현수의 결승 투런 홈런에 힘입어 SK를 5-2로 제압하고 전날 패배를 설욕했다. SK는 최정이 3안타 1타점의 맹타를 휘둘렀지만 두산의 명품 수비에 무릎을 꿇었다.

2위 LG는 1위 삼성을 잠실구장으로 불러들여 9-6으로 이겼다. 윤요섭은 8회 투런포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 1득점으로 LG 타선을 주도했고, '만풍' 이병규는 결승타로 힘을 보탰다.

한편 마산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NC-한화 전은 비로 취소됐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정찬성(왼쪽)이 조제 알도의 오른 주먹에 안면을 허용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찬성 "아~ 어깨부상"

조제 알도에 TKO패

정찬성(26)이 7년간 고대했던 종합격투기 UFC 페더급 타이틀 획득에 실패했다.

정찬성은 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FC 163에서 챔피언 조제 알도(27·브라질)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오른쪽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당해 4라운드 TKO로 패했다.

5분 5라운드제로 진행된 이날 타이틀전에서 정찬성은 별명인 '코리안 좀비'답게 시종일관 적극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8년간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알도는 타격전을 즐기던 평소와 달리 3라운드부터 그라운드전을 시도하는 등 전술에 변화를 꾀했다.

3라운드 종료 직전 파운딩 기회를 얻은 정찬성은 4라운드에 접어들어서도 수차례 왼손 잽을 날리며 선전했으나, 오른손 훅을 날리던 중 어깨가 빠졌고 이를 알아챈 알도의 집중적인 공격에 무너졌다.

/조성준기자

추신수 시즌 15호포 작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올 시즌 15번째 홈런포를 쐈다.

추신수는 4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 팀이 6-3으로 앞서가던 8회 무사 1루에서 우월 투런 홈런을 날렸다.

신시내티는 데빈 메소라코의 홈런을 더해 8-3으로 승리했다.

전날 류현진(26·LA 다저스)은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팀의 6-2 승리를 주도하며 10승(3패)째를 수확, 한국인 투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에 두 자릿수 승리를 일궜다.

/조성준기자

프로야구 전적 4일

■잠실

LG	010	204	02X	9
삼성	020	010	120	6

■문학

SK	100	001	000	2
두산	010	010	003	5

■광주

KIA	120	020	01X	6
넥센	000	000	000	0

프로축구 전적 4일

전북	4	1	인천
성남	2	2	대전

손흥민 데뷔전서 1골 1도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손흥민(21)이 레버쿠젠 이적 후 첫 공식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손흥민은 3일 리프슈타트 발츠 회스헨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독일 축구협회컵 대회인 포칼 1라운드(64강) SV리슈타트와의 경기에서 후반 18분 왼발슛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어 36분 골 지역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로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도왔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확고한 공격 본능에 힘입어 6-1 대승을 거뒀다.

한편 잉글랜드 프로축구 카디프 시티의 김보경(24)은 3일 이탈리아 세리에A 키에보 베로나와의 친선 경기에서 팀의 1-0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프리시즌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조성준기자

그랜드슬램과 더 멀어진 박인비

브리티시여자오픈 3라운드 공동 28위

최나연(26·SK텔레콤)과 박희영(26·하나금융그룹)이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73만·3642파운드) 3라운드에서 나란히 공동 3위에 자리잡았다. 골프여제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공동 28위에 머물러 '캘린더 그랜드슬램'의 꿈에서 멀어졌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질주한 최나연은 4일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링크스 올드코스(파72·6672야드)에서 계속된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5개, 더블 보기 1개로 3오버파 75타를 치는데 그쳐 순위가 하락했다.

반면 박희영은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최나연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편 박인비는 3라운드까지 이븐파에 머물렀고 4라운드 1번 홀(파4)에서도 더블 보기를 범해 한해 메이저 4개 대회 연속 우승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날 열린 3라운드는 당초 전날 끝날 예정이었으나 강풍으로 경기가 중단되면서 하루 지나 재개됐고 곧바로 4라운드가 이어졌다. /조성준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How old are you? 나이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은 몇 살인가요?
저는 21살이에요.
스미스 씨는 아직 50대예요.
당신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제 언니가 맏이예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How old are you?
I'm twenty one years old.
Mr. Smith is still in his fifties.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My sister is the oldest.

반복 훈련으로 저절로 암기하기

▶ 실전 대화 훈련

A John is not 60 yet, is he?
B I don't think so. I'd say Mr. Smith is 아직도 in his fifties.

정답 still

▶ 패턴 훈련

1 How old [are you / is she]?
2 I'm the [oldest / youngest].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can

▶ can+동사원형 (부정 cannot 또는 can't)

1 능력: ~할 수 있다
My uncle can't drive. 우리 삼촌은 운전을 못 해요.

2 가능성: ~일 수 있다 (일이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She can meet you at 5. 그녀는 너를 5시에 만날 수 있어.

2 허락: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You can use my cell phone. 너 내 휴대전화 써도 돼.

▶ 핵심문법 확인학습_우리말을 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1 저는 수영을 꽤 잘할 수 있어요. I ______ ______ pretty well.
2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어. I ______ ______ with you.
3 제가 불을 꺼도 될까요?
______ I ______ ______ the light, please?

정답 1. can swim / 2. can't be / 3. Can, turn off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Flash photography is not permitted ______ the Sakura Museum of Art.
(A) onto (B) among
(C) inside (D) toward

02. Dr. Weisman, who served for 25 years as an ______ part of the research team, will retire on March 30.
(A) integrate (B) integrally
(C) integration (D) integral

01. 사쿠라 미술관에서는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미술관 안에서'가 적합하므로 (C) inside를 쓴다.
어휘 permit 허용하다
정답 (C) inside

02. 연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서 25년간 근무했던 와이즈먼 박사가 3월 30일에 은퇴할 것이다.
해설 빈칸 앞에는 부정관사 an, 뒤에는 명사 part가 있으므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D) integral을 써야 한다.
어휘 part 및 구성원, 일원 integrate 및 통합하다 integrally 완전하게 integration 및 통합 integral 및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정답 (D) integral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2. Describe a picture

대상물의 위치 관계 표현하기

• ~의 반대편에 on the opposite side of
There is a girl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boy on the opposite side of her.

• ~을 따라 나란히 along / in a row
There are many buildings standing along the street.
Many cars are parked in a row.

• 양 옆에 on both sides of / on either side of
Many trees are planted on both sides of the street.
On either side of the street, there are many trees.